“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 행복”

제3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문화재청장상 수상 이운천씨

거진 반암리 출신의 이운천씨(32세, 사진)가 신진 전통공예 작가 발굴을 통해 우리 전통공예의 전승활성화와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온 ‘제36호 대한민국 전승 공예 대전’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강원도무형문화재인 소제 이창석씨의 아들이다. 어릴적부터 부친의 영향을 받아 나무와 친숙하게 지낸 그는 나무만 보면 무엇이든 만들어 보고 늘상 나무와 생활을 할 정도로 가까이 해왔다고 한다.

“어릴적에는 집에 오면 놀이기구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무와 친해지고, 나무를 다루게 되었지요.”

이씨는 그러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친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각자에 대해 알고 이해를 하면서 대를 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각자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부친이 2004년 5월 21일 강원도무형문화재에 지정된 후, 전승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에 전수 장학생에 선발되면서부터다.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각자장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교직에 입문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친의 대를 이어 목판의 최고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목재를 이용한 기술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 쾌감과 행복함이 느껴져요. 어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 처럼요.”

부친의 기술을 하나 하나 배워 가고 있는 이씨는 “배우면 배울수록 전통의 신비함을 엿 볼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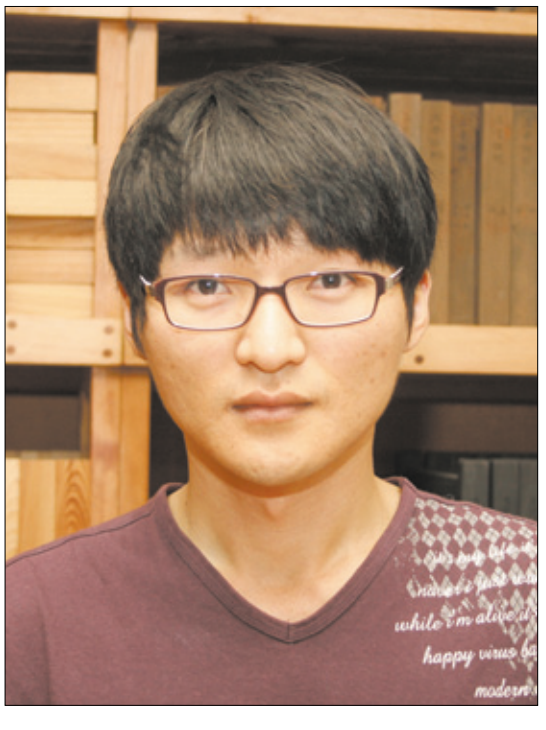
이번 제36회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조선후기 능화판(고서의 겉표지를 나무로 새겨서 한지에 찍어내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 없인 일궈 낼 수 없었다고 한다.

“저희 가족은 항상 맡은 일이 있어요. 아버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님(이일영, 52세)은 완성된 목판 능화판에 인출을 도맡아 하고 있지요.”

목판은 섬세하고 세밀함이 필요한 만큼 조각칼 사용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종류별로 조각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한다.

이제는 최고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이씨는 목판 명장이 되기 위해 오늘도 기술을 습득해 가고 있다.

박승근 기자



“겸손하고 슬기로운 회계사 되겠다”

금강지구대 김장헌 팀장 딸 김경미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고성경찰서 금강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장헌 경위(51세)의 딸 김경미씨(24, 사진)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제4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김씨는 처음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으나 1학년을 마치고 행정고시에 도전하기 위해 도시행정과로 전과를 했다.

그 뒤 3년이 지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녀는 회계와 관련된 강의를 듣다 수리적인 것에 흥미를 느껴 자연스럽게 회계분야에 관심을 갖게됐다고 한다.

그렇게 지난해 1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시작한 김씨는 학업을 병행하다, 본격적인 시험준비를 위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전문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회계 공부는 2가지를 중복해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1가지에 매진해 보자는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공부만 했어요.”

김씨는 그 결과 올해 2월에 실시된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으며, 지난 6월에는 2차 최종시험을 치른 결과 9월 1일 당당하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차 시험에 합격한 2,798명 중 961명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정말 기적이라 생각해요.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려요.”

김씨는 “사회 진출해 겸손하고 슬기로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승근 기자

산림조합 녹색금융, 숲처럼 자라다

☞ 조합원 가입방법
· 자격 : 산림 소유자 또는 임업인, 1구좌 이상 출자(1구좌 5천원)
· 가입방법 : 주소지 또는 산림 소재지 조합에 가입

☞ 조합원 가입혜택
· 의결권 :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
·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지원
·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 면제

☞ 상호금융 안내
· 수신상품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적금, 정기예탁금(비과세) 등
· 여신상품 : 일반대출, 적금대출, 예탁금대출, 일일상환대출 등
· 취급업무 : 온라인 송금 · 수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MS, 지로 등
2009년 금융결제원 참가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완료

고성군 산림조합